

◎ Chikchi Simgyōng: an Impression from Koryō Font in the year of 1377 A.D.

直指心經 : 金屬活字 考證의 經緯와 그 意義

孫 寶 基
(延世大學校 博物館長)

直指心經은 간단히 불르기 위한 약칭이고 원래 책 이름은 《白雲和尚抄錄佛祖心體要節》이다. 2권 1책 또는 2책으로 14세기의 고려 스님 白雲和尚(1299~1375)이 초실자를 위하여 禪의 要諦를 짧게 요약한 것이다. 白雲스님이 말한 것을 그의 제자인 璫이 기록하여 간행한 책으로 1377년에 淸州교외 興德寺에서 鑄字로 인쇄하였다.

I

1972년을 맞이하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 위원회(UNESCO)가 파리에서 주최한 <책의 역사> 전시회에서 80년만에 다시 전시된 셈이다. 세계의 주목을 끌은 것은 물론 우리나라 金屬活字의 發明이 다시금 논의되었다. 국내에서도 여러 신문에 보도되고 그것이 처음 알려진 사실로서 받아들여졌다.

이 책이 이 전시회에서 세계 최초의 金屬活字本으로 전시되기 까지는 파리의 프랑스 國立圖書館의 朴炳善 博士의 주선이 있었고 金屬活字本으로 증명하는데에도 그분의 수고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보도된 바는 이로써 우리나라 活字發明이 26년이나 거슬러 올라 갔고 세계 최초의 金屬活字本으로 인정되는 것과 아울러 꾸텐베르히의 活字印刷術 발명보다 78년이 앞선다는 점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II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까닭이 비록 외국의 지배를 받았다는 이유로 돌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짓임을 깨달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활자에 대해서 보통 아는 사실은 우리 민족문화의 3대 자랑거리의 하나라는 점과 金屬活字의 發明이 1234년 경이라는 정도이다. 국민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중고등학교 교과서, 참고서, 일반 국가 개설서에서도 李奎報의 <新印詳定禮文序>에 나오는 것을 들어 그 연대의 고증도 없이 서술하였을 따름이다.

왜 이 시기에 活字가 발명되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발명되었는지 또 주조 기술은 어떠한 정도로 발달되었는지, 이러한 문제제기도 설명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막연하게 기억하고 그로서 끝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파리의 直指心經이야기가 보도되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보다 오히려 의심도 하고 木活字 이리라 또는 覆刻本이리라는 등의 억측도 있었다. 흔히들 高麗의 鑄字는 木刻字일 것이라는 설도 나돌고 있었다. 高麗의 석학인 李奎報가 1234년경에 晉陽公 崔怡를 위하여 대신 지은 <新印古今詳定禮文序>에 나오는 “鑄字로 찍었다”는 말을 그가 鑄字와 木刻字와를 구별 못하고 鑄字라는 말을 썼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南明泉頌證道歌의 끝에 나오는 “1239년에 鑄字本을 거듭 새겨(重彫)서 오래 전하게 한다”는 晉陽公 崔怡의 말을 木刻字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들 祖上이 그다지 무분별할 수도 없었고 또 祖上들의 發明이나 業績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낱 송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III

1972년 7월 1일 韓國科學史學會에서 《韓國의 金屬活字》라는 主題아래 學術發表會를 열게 되었다. 筆者는 文化史의 側面을 이야기하면서 金屬活字發明에 必要하였던 政治·經濟·科學技術 등의 背景과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당시 文化公報部에 보내졌던 1장의 사진을 千惠鳳교수로부터 받아보고 틀림없이 金屬活字印本임을 말하였고 千교수도 그 形態書誌學上으로 보아 活字本임을 말하였다. 筆者는 다시 그 活字를 鑄造한 金屬이 무엇인지는 한자 한자의 근접 촬영과 확대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것도 말하였었다. 그보다 앞서 필자는 《出版文化》 1972년 6월호 8~9면에 直指心經에 대한 것과 고려의 活字鑄造術에 대한 것을 발표한 바 있었다.

그후 直指心經에 대해서 9월 일자 《東亞日報》를 통해서 覆刻本임이 틀림없다는 설이 발표되고 《書誌學》

제5호에 같은 내용의 글이 실렸다. 이에 국민들이 의아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1972년 12월 27일 국내 학자와 전문가들이 國會圖書館長室에 모여서 朴炳善 博士가 사진으로 구어온 제크기(貨物大)의 直指心經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 모임에서 그 사진을 감정한 결과 金屬活字임이 틀림 없다는 再確認을 하게 된 것이다.

朴炳善 博士는 이미 사진으로 같은 字의 字體를 비교하여 겹치는 것을 찾아 냈고 나무의 결(木理)을 찾을 수 없는 것을 그날 확인하였다. 筆者는 50배, 30배 20배의 돋보기(擴大鏡)로 관찰한 결과 金屬活字이고 특히 靑銅(靑銅) 活字로 보이는 것이 많았음을 확인하였다. 일부에서 그것이 鐵活字이라는 설을 낸본이 있었다. 하지만 주조기술상 어려운 점으로 보아 믿기 어려운 것 같다. 이제 金屬活字本임은 틀림없는 사실로 나타났다.

IV

원래 이책은 일찌기 80년전에 공개된 일이 있었다. 1892년에 파리에서 열렸던 만국박람회 한국관에 전시되었었다. 이 책이 어떻게하여 프랑스로 가게 되었을까? 프랑스는 1831년 외방전도회 본부에 한국 교구를 두고 선교사를 보내서 天主教를 포교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박해가 심하고 1866년 흥선대원군에 의한 天主教 탄압이 있자 이를 보복한다는 이유로 프랑스는 함대를 보내어 江華島를 치고 책을 빼앗아 갔다. 그후 프랑스도 우리나라와 국교를 열고 주한 프랑스 대리공사가 파견되어 왔다. 콜랑·드·쁘랑씨(Collin de Plancy)는 1888년부터 1891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代理公使로 와 있던 사람으로 우리나라의 책을 많이 모았다.

이 책은 그가 모은 책속에 들어있었다. 같은 시기에 한국에 통역관으로 와 있었던 모리스·꾸랑(Maurice Courant)은 1894~99년에 걸쳐서 병인양요(1866년)때 가져간 책을 비롯하여 그 밖의 우리나라 책의 해제를 써서 국배판으로 출판하였다. 《朝鮮書誌》(Bibliographie Coréene) Ⅲ책과《補遺》1책이 그 것이다. 쁘랑씨는 그가 수집한 책 일부를 꾸랑이 교수로 있던 파리의 동양어학교에 기증한바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가지고 있기로 하였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귀속시키게 하였다.

꾸랑은 쁘랑씨의 요구에 의하여 《朝鮮書誌》에 실지 못했던 우리나라 책들에 대한 해제를 그 《補遺》(Supplement à la Bibliographie Coréene Jusqu'en 1899)

로 내게 되었었다. 이 고려 활자본인 直指心經은 바로 이 補遺에 들어있다. 꾸랑도 이 책을 인쇄사상 대단히 중요한 책으로 다루었다. 이 補遺의 머리말에서 그는 朝鮮王朝의 太宗이 癸未字를 처음으로 發明하여 쓴 것 처럼 되어있는 것과 어긋나는 사실을 들고 이 直指心經이 1377년에 鑄造된 活字로 인쇄된 사실이 있는데도 太宗이 活字印刷를 자신의 공으로 돌린데 대한 모순되는 사실의 해석을 문제 삼았었다.

그 補遺의 제 70~71면에서 이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의 해제를 번호 3738번에서 다루고 이에서 이 책이 太宗의 命에 의하여 癸未字가 鑄造되기 26년 전에 鑄字로 印刷된 서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같이 밝혀진 내용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活字연구 학자들은 그 원본을 보기를 희망하였고 일인 학자 黑田 亮도 1940년에 간행한 그의 《朝鮮舊書考》에서 이에 언급하였다.

V

이 같은 배경을 가졌던 이 책을 우리나라에서 1972년에 이같이 다룬 것은 한 날 웃지 못할 이야기이다.

直指心經이 현재 전해지는 金屬活字本 중에서 가장 오랜 책이라는 것은 앞으로 다른 더 이른 印本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또 앞으로 결간의 발굴등에서 活字를 부어 만들던 거푸집(鑄范)이 나오면 가열하여 발광시켜서 원자의 조사로 연대를 측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오랜 인본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 直指心經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發明된 고려 活字印刷術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으로만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이 活字鑄造와 印刷術이 중국 아랍 등을 거쳐서 구텐베르히의 알파벨 인쇄술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증거를 더 찾아내야할 것이 연구 과제로 새로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 金屬活字에 의한 印刷術發明의 동기 역사상의 필요성 정치·경제·사회·과학기술의 배경이 이해되어야 하겠다.

金屬活字의 發明은 적어도 1126년부터 1232년 사이로 올라가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이에 여러가지 이유를 들수 있다. 고려때에도 新羅때 같이 中國의 佛敎와 儒學文化를 재빨리 받아들이고 있었다. 高麗가 책을 가져온 것은 宋나라이었는데도 宋에 없는 책을 宋은 高麗에서 구하여 간 일도 있었다(1091). 1123년에 고려에 왔던 宋나라 사신 徐兢은 그가 쓴 報告書인 《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 高麗에는 宮中에 淸燕閣, 臨川閣 등이 있어 藏書가 각 數萬卷씩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후 3년이 지난 1126년에는 李資謙의 亂으로 궁궐이 다 불타고 이러한 귀중한 장서도 깃더미로 사라졌다.

다음해에 宋은 金나라에 밀려서 남쪽으로 달아나고 書籍文化의 源泉이던 北쪽은 金나라의 점령지가 되어 버렸다. 東坡 蘇軾이 高麗에 책을 주지말라고 세번씩 상소한 것은 高麗人의 知識慾을 두려워하고 宋의 비밀이 못나가게 하자는 것이었지만 宋은 金에게 당하고 말았다. 靖康의 變이라고하여 宋의 徽宗·欽宗이 불모로 잡혀가기까지 하였다. 이에 高麗는 서적의 供給源을 잃었던 것이다.

이때 高麗로서는 部數는 적지만 여러가지 책을 적어야 한다는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얼핏때 덜치는 격이었다. 그러나 高麗는 1102년에 宋에서 鼓鑄法을 처음으로 배워왔다. 이것은 바로 풀무질을 하면서 코쿠스를 빼어 고도의 열을 일으켜 금속을 녹이고 북같이 생긴 거푸집을 만들어 썼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새로운 법으로 高麗는 鑄錢을 하였다. 용해도가 낮은 놋쇠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고려의 청동전의 두드러진 글자가 매우 뚜렷하여 中國의 貨幣연구자들이 高麗 돈을 칭찬할 정도이었다. 이 주전 기술은 바로 活字鑄造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었다. 이에 高麗는 1126년 이후 活字를 만들고, 책을 찍게 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170년 이후는 武臣들이 득세하였고 각 절간에서는 전부터 놋쇠의 용기나 종을 부어 만들었다. 活字도 부어 만들어 책을 찍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金屬鑄造는 무번의 일이나 절간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주조는 그들에게는 그다지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되었을 것 같다.

1234년경에 李奎報가 晉陽公을 위하여 써준 “詳定禮文”의 머릿말에는 그대로 鑄字로 적었다는 이야기만 나와 있다. 그러므로 이때 새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원래 《南明泉和尚頌證道歌》라는 책은 일찌기 鑄字로 적었던 것인데, 이미 없어져서 곤란하기에 다시 彫刻匠을 모아서 1239년에 鑄字本을 새겨서 木版本으로 적었다는 것이다. 江華島로 피난간 것이 7年前인 1232년이므로 7年사이에 좁은 강화도에서 이 책이 없어졌다는 말은 아닌 것이다. 즉 江華島에 피난가기 前에 이 책이 鑄字로 인쇄 되었을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왜 그러면 江華島에서 한편으로 《詳定禮文》은 鑄字로 인쇄하고 또 한편으로는 鑄字本을 木版으로 인쇄하였는가 하는 데에 의문이 일 것이다. 《詳定禮文》은 50권이 되는 많은 책이므로 木版으로 새긴다면 비용이 많이 든다. 木版을 새기려면 나무·조각장 등 경비가 크게 들고, 활자는 다시 풀어서 쓸 수 있기에 경제성에 맞는다. 그러나 《南明泉和尚頌證道歌》는 한편으로 장수가 44로 적은 것이기에 차라리 木版으로 만들어두어도 비용이 얼마 안되고 木版은 오래두고 다시 필요할 때마다 찍어낼 수 있었던 까닭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金屬活字 發明이 적어도 李資謙의 亂이 일어난 후 江華島로 천도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木版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발달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금속활자는 元나라를 거쳐 아랍으로 다시 아랍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그 의의로 찾아지는 것이다.

본 협회에서 수행할

바람직한 사업의 제안을 기다립니다.

본 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우리 도서관계를 더욱 더 향상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의 「사업아이디어」를 회원 여러분께서 얻고자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사업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셔서 당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협월보」 원고 모집

본 월보에 掲載할 原稿를 會員諸位에게 널리 募集하오니 다음과 같은 內容의 글을 每月末日까지 事務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圖書館學 및 實務에 關한 論文
2. 圖書館界의 뉴스, 人事消息, 其他 會員通信에 關한 消息
3. 圖書館과 關제되는 隨筆 또는 手記
4. 其他 本 月報에 掲載할 수 있는 內容의 글(200字 原稿紙 30枚 內外)